

전남 서부권

무안 발전 '숨은 자원' 발굴 나섰다

■ 민선5기 1주년 읍·면 특색있는 지역발전 토론회

몽탄, 한옥+도자기+친환경 '패키지 체험'

'학마을 된장' 소득창출 로컬 푸드화 제시

무안군 각 읍·면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발전을 모색한다.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색있는 읍·면 지역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5기 1주년을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무안실현을 위해 읍·면의 특성이 뭉칠 땐어 나는 시책 발굴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읍·면장 수행

과정에 느꼈던 현장감을 토대로 ▲주민 소득창출 ▲깨끗한 환경조성 ▲주민소통 문화 등 9개 읍·면에서 실천가능한 총 34건의 시책들이 제안됐다.

무안읍은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원리 백로 예가리 번식지, 물맞이골 주변 환경정비에 나서며 '학마을 된장'을 로컬푸드 사업으로 제시했다.

일로읍은 폐철도부지~일로역을 연결하는 '거닐고 싶은 거리'와 회산 백련지 주변 '웰빙 황토밭길' 조성 등

으로 사계절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제안했다.

삼향읍은 남악 부녀회와 자연마을 부녀회간 자매결연 추진, 우리 지역 바로알기 견학, 학생 봉사동아리(4인1조) 등 도·농 상생 프로젝트를 강구했다.

몽탄면은 약살한옥촌 마을과 도자기, 친환경농업 체험프로그램을 하나의 '풀 패키지'(full-package)로 만들어 체험관광으로 농촌소득을 창출하고자 했다.

청계면은 46개 마을을 매주 2회 이상 방문해 소외계층 안부 살피기 및 주민 갈등요인 파악 등 소통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현경면은 현경~해례간 국도변을 노인 일자리사업을 연계해 꽃길조성과 봉오제 사진존(zone)을 설치해 지역 명품 길로 재탄생 시킨다.

망운면은 지역사회의 리더 단체인 면 번영회를 새롭게 부활시키고 톨머리 주변의 음식·숙박업소를 지도해 깨끗한 손씻기 캠페인을 생활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례면은 전통문화인 짚 공예를 활성화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며, 앞으로 봉대산을 근접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운남면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 희망을 충전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서삼석 군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읍·면이 가진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해 살기좋은 삶터로서 지역을 재창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명품마을 1호' 진도 관매도 관광객 유혹

테마형 마실길 등 생태관광 명소 자리매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한민국 명품마을 제1호'로 지정한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가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도군이 14일 개최한 '명산 문화기행'에는 관광객 200여명이 참가해 테마형 마실길과 돌담길, 습지관찰로 등 생태 탐방을 실시

했다.

관매도는 총 길이 3km의 관매해수욕장 뒤편에 국내 최대 규모인 9만9000㎡(3만평)의 해변 송림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는 50~100년생인 아름드리 곰솔(해송)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 지난 해 산림청으로부터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동진 군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측과 함께 진도 관매도 관광의 증가에 대비해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관광 휴양 섬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재해 취약사업장 점검

노동청 목포지청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훈원)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 해남, 장흥지청은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간 중대 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을 비롯해 재해다발 사업장 등 36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추락·붕괴에 의한 재해) ▲제조업(끼임 재해) ▲기타 서비스업(넘어짐·끼임 재해) 분야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어족자원 보호 서해 어업지도사무소

'서해 어업관리단'으로 명칭 변경

서해 어업지도사무소 기관 명칭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변경된다.

서해 어업지도사무소는 그동안 어업분쟁 조정, 불법 중국어선 나포 등 우리나라 황금어장을 지키고 어족자원 보호 첨병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04년 2월 목포시에 동지를 둔 서해 어업지도사무소는 서해 전역에서 국내외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와 함께 2008년 2월 서해연안의 51개 국가어항 건설과 어업분쟁 조정업무 등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관 위상에 걸맞은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규진 서해 어업지도사무소장은 "기관 명칭변경을 계기로 안전조업지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처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 어업지도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 1차 소속기관으로 어업지도과 등 4개과, 국가어업지도선 15척, 인천광역시에 1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직원 수는 270명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미군기지發 환경오염 문제 확산

기름 유출이여 석면 매립·고엽제 살포 의혹 제기

군산시의회·시민단체 "민·관 공동조사" 촉구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군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미군기지의 기름유출로 촉발된 논란이 석면매립과 고엽제 살포의혹으로 더욱 확대하면서 20여 일째 미군과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과거에 발생했던 환경논란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경북 칠곡과 경기도 부천 등 다른 주한 미군기지에서도 고엽제와 화학물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와 맞물려 군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일단락될 듯 보였던 기름유출 사건이 환경오염 문제 전반으로 치닫해

된 것은 기름유출에 이어 석면매립과 고엽제 살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선데 달린 격으로 이 시점에 '군산 미군기지에서 1968년에 고엽제가 살포됐다'는 한 퇴역 미군의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결국 미군기지는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군산지역 시민단체인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주한미군은 물론 군산 기지 안에서 근무한 한국군과 민간인은 물론이고 군산기지 인근 주민들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면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군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이 소음 문제에서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옮겨지면서 시민단체 반발의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름유출 사건과 석면 폐기물 매립에 이어 고엽제 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군산 기지 내부와 인근 마을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환경실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미군기지에 대한 민·관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 조사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에 따라 환경문제 가 일어났을 때 미군 측으로부터 통보만 받게 돼 있다.

결국 미군측이 스스로 내부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 공동조사는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전북 '꿈의 소재' 탄소섬유 생산기지 만든다

효성, 연산 2000t 규모 공장 건립 등 1조2000억 투자

전북도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의 생산기지로 본격 개발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국내 최초로 중성능 탄소섬유(T-700급) 개발에 성공한 (주)효성과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효성은 탄소섬유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18만2253㎡에 연산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또한 (주)효성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섬유 분야에 총 1조 7000억원을 증설 투자해 연산 1만 7000t 규모로 확대하고 1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은 새만금지역에 그린에너지 산단을 조성하는 삼성과 군산 국가산단의 현대중공업, 새만금산업단지의 OCI(주), 익산산단의 일진머티리얼즈(주)에 이어 (주)효성이 다섯 번째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2008년부터 전주기계 탄소기술원과 공동으로 탄소 섬유 개발에 착수, 3년여의 연구 끝에

탄소섬유 생산에 성공한 (주)효성과 정부, 전북도, 전주시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첨단 신소재인 탄소섬유는 항공우주, 스포츠·레저, 자동차·풍력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증가를 위한 경량화의 핵심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미국의 극소수 기업만이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수요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주)효성이 개발한 중성능 탄소섬유 제품은 강철보다 무게는 5분의 1로 가볍고, 강도는 10배나 강한 첨단 신소재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순창 금과 들노래 공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보존회(회장 임준호) 회원들이 지난 12일 순창 금과들소리 전수관에서 들노래 공연을 갖고 있다.

김형만 남원부시장·신현승 순창부군수

기초단체장 권한대행 업무 돌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음에 따라 남원시와 순창군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남원시 김형만 시장권한대행(부시장)은 같은날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국·소·과장·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긴급 소집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의 조속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순창군 신현승 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20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 권한대행은 13일 대통령 직속



<김형만 부시장> <신현승 부군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열리는 2012년 연계협력사업 최종평가회 참석과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등 내년도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를 방문했다.

신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주요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전주 맑은물사업소 수질검사 능력평가 '만점'

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최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의 '수질검사기관 정도관리(AQC) 능력평가'에서 지난 2008년부터 4년 연속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농약류·중금속류 등 먹는 물 분야 14개 항목 ▲상수원수 분야 시안 등 3개 항목 ▲살모넬라 등 미생물류 3개 항

목 등 총 20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먹는물 검사기관 감독부서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 평가결과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이하는 부적합으로 평가해 공공 검사기관의 자격을 취소시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하수관거 민자사업 내달 마무리

군산시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해 온 하수관거 사업이 오는 7월 완공된다.

이전 사업으로 새만금유역 5개 처리장 주변인 대야, 옥구, 옥서, 회현, 임피 서수 일원과 시내 내운 1·2·3동, 수송동 지역에 기존 하

수관거에 대한 정비와 우수·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5700세대에 오수관과 오수받이 등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716억원의 민자가 투입됐으며, 향후 20년간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킴이(주)가 하수관거 운영을 맡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벽골제서 매월 셋째 토요일 문화공연

김제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토요일에 부랑란 벽골제(사적 제111호)에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문화유산과 관광기반 시설을 활용해 공연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에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

공연은 '쌍룡의 울부짖음으로 벽골제를 깨우다! 김제 벽골제 생생체험'을 주제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벽골제 역사탐방, 수문 모형과 쌍룡 만들기, 연날리기, 박물관 속 벽골제 보기 등으로 꾸며진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시, 전북 장애인체전 종합 우승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전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남원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남원시 장애인체육회(회장 김형만)는 수영, 육상, 배드민턴 등 체육행사 7종목(49명)과 문화행사 5종목(110명)에

참여해 금메달 6개·은메달 6개·동메달 7개를 각각 획득했다. 남원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해 9월 정식 출범한 후 이번 대회에 첫 출전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